



장애인·비장애인 자전거로 '한마음'

지난 15일 광주 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2014 문화체육관광장관배 전국아울림사이클대회'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들이 하나가 돼 출발선을 나서고 있다. 광주시장애인체육회가 주최한 이번 대회에는 17개 시도 휠체어 사이클 동호인과 비장애인 사이클 동호인 450명이 참가했으며 7km와 21km 2개 부문의 10개 세부 종목으로 나눠 진행됐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차일목·송은범 'FA'

KBO, 선수 21명 명단 공식

21명의 선수가 프로야구 FA(자유계약) 자격을 얻었다. 한국야구위원회(KBO)가 16일 2015년 FA 자격선수 명단을 공식했다. KIA 포수 차일목과 투수 송은범을 비롯한 최정·이재영·김강민·나주환·조동화·박진만 (이상 SK), 윤성환·권혁·안지민·배영수·조동현(이상 삼성), 김사율·장원준·박지혁(이상 롯데), 박경수·박용택(이상 LG), 이성열(넥센), 이원석(두산), 김경언(한화) 등 총 21명이다. 신규로 자격을 취득한 선수는 17명이고 배영수·박용택·박진만은 재계약 선수다. 박지혁은 FA 승인 신청을 하지 않고 자격을 유지한 경우다. 구단별로는 SK가 6명으로 가장 많고 삼성 5명, 롯데 3명, LG와 KIA 각 2명이고 넥센·두산·한화가 각각 1명씩이다. 타자는 매 시즌 정규시즌 총 경기수의 3분의2이상 출전, 투수는 규정투구 횟수의 3분의 2이상 투구한 시즌이 9시즌에 도달할 경우 자격을 얻을 수 있다. 1군 등록일수가 145일 이상(2006년 이전 150일)인 경우에도 1시즌으로 간주한다. 단, 2006년 신인선수부터는 등록일수로만 FA 자격 년수를 계산한다. 4년제 대학 졸업 선수(대한야구협회에 4년간 등록된 선수)의 경우는 위 조건이 8시즌에 이르면 FA 자격을 얻는다. 공식된 FA 자격선수는 18일까지 KBO에 승인을 신청해야 하며 19일 승인 신청 선수가 공식된다. FA를 신청한 선수는 20일부터 26일까지는 원소속구단과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계약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27일부터 12월3일까지 타구단과의 계약이 가능하다. 이 기간까지 거취가 결정되지 않을 경우 12월4일부터 1월15일까지 원소속구단을 포함한 모든 구단과 계약을 할 수 있다. 이후에는 자유계약선수로 공식된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KIA '꿀맛 휴식'

日 마무리캠프, 오늘 두산과 연습경기

지옥의 캠프에 '꿀맛 선물'이 주어졌다. KIA 타이거즈의 마무리 캠프가 진행되고 있는 일본 미야자키 휴가시. 어느 날과 마찬가지로 아침 일찍 기상해 훈련을 준비하던 선수들에게 뜻밖의 선물이 주어졌다. 이날은 4일 훈련 1일 휴식 스케줄로 훈련이 진행되고 있는 마무리캠프의 훈련날이었지만 선수단에 '휴식' 스케줄이 내려진 것이다. 미야자키 캠프에서는 예상보다 강도높은 훈련이 진행되고 있다. 컨셉은 '체력'이다. 체력 강화를 목표로 고강도 훈련이 반복되면서 중반을 넘어선 캠프에 피로도가 쌓인 상태다. 부상 등을 염려한 코치진은 이날 갑자기 감독에게 오후 훈련을 일찍 끝내는 '하프데이'를 요청했고, 김 감독은 화끈하게 휴식 선물을 내렸다. '할 때는 확실히 하고 쉬 때는 꼭 쉬는 것'을 강조한 김 감독은 '휴식'을 강조하며 선수들에게 휴식 스케줄을 부여했다. 휴식 스케줄을 받은 선수들은 17일 실전을 치른다. 역시 미야자키에 마무리 캠프를 치른 두산과의 연습경기가 준비됐다. KIA 선수들은 두산의 캠프지인 사이토 구장으로 건너간 오후 1시부터 연습경기를 갖고 실전 점검을 할 예정이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광주FC의 기적' 시작된다

K리그 챌린지 4위 확정
22일 강원과 준PO 단판
승격까지 험난한 길

K리그 챌린지 '최후의 날' 광주 FC와 강원 FC가 4강 전경에서 생존했다. 프로축구 K리그 챌린지 최후의 날 16일 전국 5개 구장에서 치러졌다. 대전의 우승과 안산의 2위가 확정된 가운데 치러진 최종전은 3·4위 싸움이었다. 남은 두 팀의 4강 티켓을 놓고 강원(승점 51), 광주(승점 50·골득실차 5), 안양(승점50·골득실차 -3), 수원 FC(승점 48)가 벌인 운명의 경기. 다양한 4강 경우의 수를 놓고 치러진 36라운드에서 남은 두 팀의 4강 플레이오프 티켓은 강원과 광주의 품에 안겼다. 강원은 수원월드컵경기장에서 치러진 수원과 경기에서 2-1 승리를 거두며 3위로 2014 시즌을 마감했다. 고양종합운동장에서 고양과 최종전을 치른 광주의 4강행은 더 극적이였다. 골득실차로 간신히 안양을 따돌리고 얻은 귀한 4강 티켓이었다. 승리를 할 경우 자격으로 4강행이 확정되는 경기였지만 부상 악재가 광주를 덮쳤다. 남기일 감독대행은 경고누적으로 빠진 디에고의 자리에 임선영을 투입하고 윤상호를 공격형 미드필더로 세우며 승리 사냥에 나섰다. 광주가 전반전 주도권을 잡았지만 고양의 창이 더 매서웠다. 전반을 0-0으로 마감한 광주는 후반 14분 파비오를 투입하며 전세 뒤집기에 나섰다. 그러나 파비오가 그라운드에 오르자마자 발목 부상으로 쓰러지면서 4분 만에 안성남과 교체됐다. 예상치 못한 부상에 광주의 공격은 뜻대로 풀리지 않았다. 골 결정력 부족과 패



16일 고양종합운동장에서 열린 K리그 챌린지 광주와 고양의 시즌 최종전에서 광주의 미드필더 여름이 상대 수비수를 뚫고 드리블을 하고 있다. <광주 FC 제공>

스 실수로 자격으로 4강행이 확정되지 못한 광주는 안양의 경기를 살펴봐야 했다. 다행히 안양이 대구와 2-2 무승부로 승점 1을 보태는데 그치면서 골득실차에 앞선 광주가 4위로 시즌을 마감하게 됐다. 4강 플레이오프는 큰 산을 넘었지만 클래식 리그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다. 1부 복귀를 위해서는 4경기를 치러내야 한다. 첫 번째 관문은 강원과의 준플레이오프다.

광주는 22일 오후 2시 적지로 가서 3위 강원과 경기를 갖고 준플레이오프를 치른다. 단판 승부다. 준플레이오프 산맥을 넘으면 29일 2위 안산과 한판 승부를 벌여 승강 플레이오프를 치를 수 있는 자격을 얻어야 한다. 무승부는 의미가 없다. 4강 플레이오프에서는 연장전과 승부차기가 없다. 무승부의 경우 상위 성적을 기록한 팀이 승자가 된다. 4위 광주에게는 승리만 필요하다.

마지막 관문은 클래식 리그 11위 팀과의 승강 플레이오프다. 12월3일과 12월6일 홈 앤드 어웨이로 치러지는 승강 플레이오프에서 승자가 되어 클래식 무대를 다시 밟을 수 있다. 한편 클래식 리그 최하위인 12위 팀은 자동 강등되고 11위를 기록한 팀은 클래식 리그 잔류를 위해 승강 플레이오프를 치러야 한다. 클래식 리그는 시즌 종료까지 2라운드를 남겨두고 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김효주 KLPGA 평정 시즌 상금왕·다승왕·최저평균타수상·대상 '씩쓸이'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2014년 시즌이 김효주(19·롯데)라는 대형 스타플레이어를 배출하면서 막을 내렸다. 매년 흥행몰이를 해왔던 KLPGA 투어는 신지애(26)와 서희경(28)이 해외 무대로 진출한 뒤 절대 강자가 없는 혼전 양상이 벌어졌다. 이 같은 혼전을 한꺼번에 정리한 선수가 김효주다. 그는 2014년 시즌 상금왕(12억원)과 다승왕(5승), 최저평균타수상(70.26타), 대상 등 주요 타이틀을 휩쓸면서 각종 신기록을 써나갔다. 2012년 촉망받는 유망주로 등장했던 김효주는 지난해에는 우승 없는 한해를 보냈지만 지난 6월 메이저대회인 한국여자오픈 우승을 신화탄으로

국내 투어에서만 5승을 쓸어담았다. 이 가운데 3승은 한국여자오픈을 포함해 하이트진로 챔피언십과 KB금융 스타 챔피언십 등 메이저대회에서 달성한 것이었다. 김효주는 또 시즌 상금 10억원을 돌파하며 역대 KLPGA 투어 최다 상금 기록을 새로 썼다. 또한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메이저대회인 에비앙 챔피언십까지 제패하며 내년 시즌 미국 무대로 진출할 발판을 마련했다. 김효주와 함께 또 한명의 기대주는 동갑내기 백규정(19·CJ오쇼핑)이다. 김효주보다 한해 늦게 프로에 데뷔한 백규정은 국내 투어에서 3승을 올렸을 뿐 아니라 국내에서 열린 LPGA 투어 하

나외한 챔피언십에서 우승, 내년에 미국 무대로 진출한다. 역대 KLPGA 투어에서 한해에 2명의 선수가 LPGA 투어 우승을 통해 출전권을 따낸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김효주와 백규정이 내년 미국 투어로 진출하지만 국내 투어는 두 선수 못지않은 흥행카드 발골에 성공했다. 16일 끝난 시즌 마지막 대회인 조선일보-챔피언십 우승으로 3승을 수확한 전인영(20·하이트진로)을 비롯해 허윤경(24·SBI저축은행), 이정민(22·비씨카드), 김세영(21·미래에셋) 등 젊은 선수들이 버티고 있어 내년에도 국내 1인자 자리를 놓고 치열한 경쟁이 이어질 전망이다. /연합뉴스